



광주관광공사, 관광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광주시관광공사가 지난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트레블 레이블 이용규 대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무용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에 색을 더하는 광주 스토리텔링 관광'을 주제로 제3회 광주 관광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사진)

30일 광주 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광주 시내(Cine)로드 상품화 사례 △광주 동구 스토리관광 활용 사례 △가이드투어 도입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의 발표와 함께 광주 스토리텔링 관광 활성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로자전거나라 프랑스, 터키지사 팀장을 역임하고 2천회이상 루브르박물관과 오르세미술관 해설 경험을 가진 '트레블레이블' 이용규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양림역사문화마을, 미식 등 광주의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 방향성과 함께 가이드투어 관광 시장의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노병하 기자



남구 진월동7979봉사단, 가정의 달 행사

30일 광주 남구 진월동 7979 봉사단은 진월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김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5월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이날 행사는 개회 및 참가인봉사단체(대표 김희상) 식전 노래 교실 공연 프로그램, 돼지고기 나눔 등 보고 먹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진월동 조복순 7979봉사단장은 "항상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지영 복지활동가는 "오늘 섬김과 나눔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돼지고기 주물럭을 맛있게 드시고 평생 건강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광주소방, 여름철 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광주소방안전본부는 30일 장성군 합동저수지에서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때 구조대원의 수중 구조장비 숙달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전문구조대원 양성을 목표로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구명보트와 제트스키를 활용한 인명구조훈련, 스킨스쿠버 장비 및 개인별 수난구조장비 숙달 등 맞춤형 수중 구조훈련으로 진행됐다.

또 공중수색, 구명부한 투척 등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요구조자와 실종자 수색, 돌발상황 대처 등 다양한 상황별 훈련으로 빈틈없는 수난사고 대응체계를 갖췄다. 노병하 기자



어나더키친, 지역 소외아동에 식사 지원

광주·전남지역 외식브랜드 '어나더키친'이 지역 소외아동 400명 대상 정기적으로 식사 후원활동을 진행한다.(사진)

어나더키친(대표 김유변)은 30일 광주 동구 영신원 2층 강당에서 (사)광주아동복지협회(회장 최모세)와 '사랑의 먹·보(먹여주고·보답하는) 나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유변 어나더키친 대표, 유다운 어나더키친 이사, 고재구 어나더키친 총지배인, 최모세 광주아동복지협회 회장, 민재용 광주아동복지협회 부회장 등 양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어나더키친은 광주아동복지협회 소속 소외아동 400명에게 사랑의 식사 및 도시락 후원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광주아동복지협회는 지역 소외아동의 복지 증진책 마련에 힘을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 광산경찰,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

광주 광산경찰은 30일 남부대학교에서 학생인권센터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 및 성범죄·교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광산경찰은 최근 유행하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 소식지를 활용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술 먹지 않기 △마가개 열려있는 술·음료 주의하기 △남이 몰래 먹인 마약 복용은 불처분 등을 홍보했다.

그러면서 마약 섭취 의심 사례는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인 간 폭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과 적극적으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학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3개 조로 나눠 분관 건물과 기숙사동 전체 화상실 67개소를 복합 탐지기로 점검했다. 정상아 기자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김귀남(사진)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 이사장은 탈 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보여주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UN에서 세계 환경의날 주제로 선정된 '플라스틱 오염 퇴치'에 맞춰 환경부에서 2023년 6월5일 기획한 챌린지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탈 플라스틱을 위한 실천 각오를 SNS에 게재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귀남 이사장은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BBP' 등 해시태그를 달아 참여를 인증했다.

광주신보는 지난 22년 12월에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후 제출 서류 제로화, 디지털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지속해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등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귀남 이사장은 "무심코 사용하던 플라스틱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재단 차원에서 플라스틱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직 일단 유지... 갈등 심화 불가피

결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서 '불편한 동거'로 그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민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대표 측은 민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설립 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이번 임종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대표 측은 탄원서도 작용했는지 관심이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종)에서 민대표 해임안에 의



민희진



방시혁

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대표 측근 2%를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뉴진스는 민대표의 관리 하에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뉴진스는 내달 21일 일본 데뷔 싱글 '수퍼내추럴' 발매, 같은 달 26-27일 도쿄 돔 팬미팅 등 굵직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 민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어도어 이사진은 임종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 측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는 이미 신임 어도어 이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변수는 하이브가 민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뉴시스

임영웅 팬클럽,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1000만원 기부

가수 임영웅(사진)의 팬들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7일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나눔모임'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16일 임영웅의 생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나눔에는 '영웅시대 밴드 나눔모임' 회원이 동참했다.

병원 측은 전달받은 후원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 의료 소모품 등의 의료자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ADHD, 우울증, 학습장애에 소아·청소년 환자의 심리검사 및 치료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영웅시대밴드 나눔모임은 지난해 국제성모병원에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기부금은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아동의 의료 지원비용으로 사용됐다.

이로써 누적 후원금은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변우석, 사생활 피해 "거주지 무단방문 법적조치"

배우 변우석(사진) 측이 사생활 피해를 호소했다.

소속사바로엔터테인먼트는 30일 팬카페에 "스케줄 현장 방문 관련해 당부의 말씀 전한다. 인파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공개 스케줄의 경우, 몇몇 팬들의 허락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 배우와 주위 측 피해가 심각하다. 공개된 일정 외 스케줄 현장 방문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케줄이 끝난 차량을 따라오는 행위, 거주지를 비롯한 사적인 공간에 무단으로 방문하고 촬영하는 행위, 개인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행위를 금한다"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우석은 최근 막을 내린 tvN '선재 업고 튀어'로 신드롬급 인기를 끌고 있



다. 시청률 5%대(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에 그쳤지만, 화제성 1위를 휩쓸었다. 전날 학동역 인근 카페에서 종방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오전 10시께부터 변우석을 보기 위해 팬들이 몰렸다.

바로엔터는 "공식 스케줄에서 팬들의 현장 방문 시 밀착하고, 직접적으로 편지와 선물을 주는 행동을 포함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행동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며 "편지나 선물은 매니저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편지와 선물은 회사 주수로 보내주면 담당 매니저먼트 팀에서 전달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팬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했다. 뉴시스